

제1회 부산무용콩쿨



일시 : 1983. 12. 26일 6시30분
장소 : 시민회관 대강당
주최 : 부산직할시
주관 : **KBS** 부산방송국
후원 : 한국예총부산지부
부산일보사

한국무용 · 전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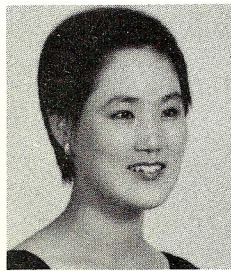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김 현 진
- 생년월일 : 1944. 5. 15
- 작 품 명 : 살 풀 이
- 작품시간 : 7분

해설 : 무속에서 비롯된 춤. 액이나 살을 푼다는 것으로 무당춤에서 추어졌던 것을 오늘날 무대화 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방무용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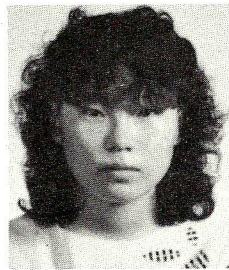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김 계 향
- 생년월일 : 1933. 6. 12
- 작 품 명 : 입춤 (굿거리)
- 작품시간 : 7분

해설 :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동래지방의 천승 동래 굿거리 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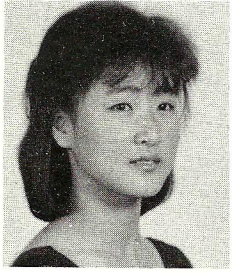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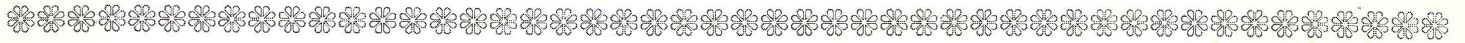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장 순 향
- 생년월일 : 1960. 7. 7
- 작 품 명 : 승 무
- 작품시간 : 7분

해설 : 승무는 한국의 모든 무용중에서 가장 승화되고 상징성이 높은 무용으로 세월이 거듭할수록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는 대표적인 춤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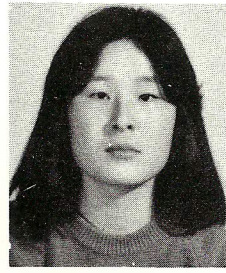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최 은 경
- 생년월일 : 1964. 9. 5
- 작 품 명 : 도 살 풀 이
- 작품시간 : 7분

해설 : 우리 삶에 대한 한을 춤으로서 나타낸 작품이다.



- 성 명 : 오 미 화
- 생년월일 : 1963. 10. 22
- 작 품 명 : 살 풀 이
- 작품시간 : 4 분 45 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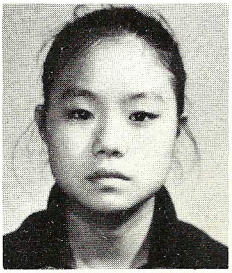
해설 : 무속에서 나온 것으로 살을 푼다는 것으로 만들어진 전통무용.



- 성 명 : 박 미 영
- 생년월일 : 1964. 11. 4
- 작 품 명 : 살 풀 이
- 작품시간 : 4 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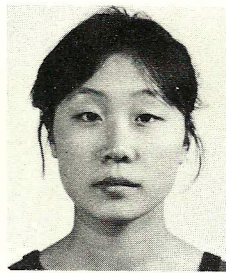
해설 : 무속에서 나온 것으로 살을 푼다는 것으로 만들어진 전통무용.

● 현대 무용 ●



- 성 명 : 공 상 은
- 생년월일 : 1967. 2. 15
- 작 품 명 : 돌 개 바람
- 작품시간 : 3 분

해설 : 돌개바람은 회오리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고 세계 부는 바람인데 천태만상의 모든 물질의 움직임을 신체적으로 크게 나타내는 동작이다.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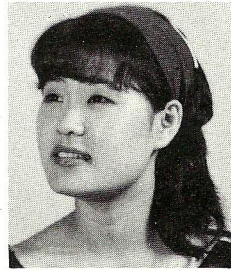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박 춘 화
- 생년월일 : 1967. 2. 11
- 작 품 명 : 울 가 미
- 작품시간 : 3 분

해설 : 현대 모든 물질문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몸부림.



- 성 명 : 노 현 정
- 생년월일 : 1962. 1. 6
- 작 품 명 : 고독한 사람은
- 작품시간 : 6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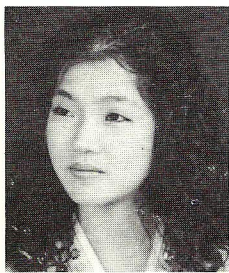
해설 : 고독은 하나의 본능이며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고독의 그림자는 남을 것이다. 둘이 앉아 쳐다보는 벽이 혼자서 쳐다보는 벽보다 더 고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?



- 성 명 : 김 형 희
- 생년월일 : 1962. 3. 5
- 작 품 명 : 젊 은 날 개
- 작품시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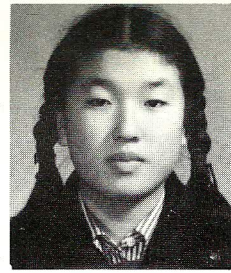
해설 : 젊음, 열기, 갈등, 충동, 발산……
약동하는 젊음의 나래를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.

● 한국무용 · 창작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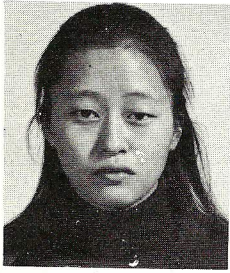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정 진 옥
- 생년월일 : 1961. 12. 26
- 작 품 명 : 추 상
- 작품시간 : 5분

해설 : 참고 견디는 것이 여인의 숙명이기에 한여인의 正恨을 우리의 전통적 춤의 기법에서 새로운 극적 표현의 몸짓으로 인간의 내적 표현을 심도있게 다뤄보려 한다.



- 성 명 : 이 성 빈
- 생년월일 : 1967. 1. 21
- 작 품 명 : 선 울
- 작품시간 : 3분

해설 : 한국 여인의 순수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묘사시킨 고전작품.



- 성 명 : 김 진 영
- 생년월일 : 1966. 6. 10
- 작 품 명 : 학 의 나 래
- 작품시간 : 3 분 35 초

해설 : 삭풍에 휘날어진 청송가지에 앉아 광장한 들판과 푸른 강을 누비며 자유롭게 약동 하는 아름다운 자태는 옛부터 춤으로 표현되었다. 무형문화재 40호 학춤과 동래 학춤의 춤사이를 살려 새 아침의 일출부터 노을진 일몰까지의 鶴의 생동을 무용화 해본 것이다.

제1 회 부산무용콩쿨

1983. 12. 26
부산시민회관

부산직할시
KBS 부산방송국

발 레



- 성 명 : 조 정 선
- 생년월일 : 1961. 1. 30
- 작 품 명 : "백조의호수"
- 작품시간 : 1 분 40 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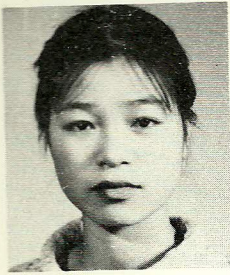
해설 : 백조의 호수 2막중
오렛드 공주의 Solo춤.



- 성 명 : 고 미 숙
- 생년월일 : 1961. 12. 3
- 작 품 명 : 희 열
- 작품시간 : 1 분 50 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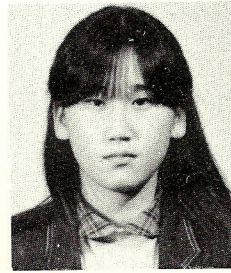
해설 : 희열 그 제목 자체 그대로 금방이라도 터져 버릴것 같은 화산처럼 이 광열함을 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.

본심진출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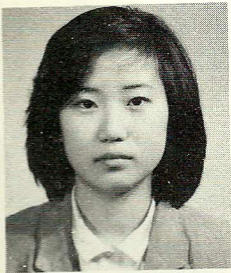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박 남 희
- 생년월일 : 1961. 12. 11
- 작 품 명 : 피치카토 폴카
- 작품시간 : 2 분 40 초

해설 : 폴카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스타카토를 이용한 발레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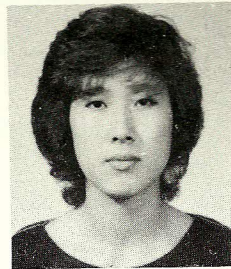
- 성 명 : 송 정 숙
- 생년월일 : 1967. 4. 10
- 작 품 명 : 유쾌한 휴일
- 작품시간 : 3 분

해설 : 오랫동안 얻은 휴식을 마음껏 즐기는 춤. 요즘 학교수업에 멍애가 되어 고충 받는 학생들의 해방을 읊어 보았음.



- 성 명 : 윤 순 희
- 생년월일 : 1966. 7. 6
- 작 품 명 : 오로라의 춤
- 작품시간 : 3 분

해설 : 잠자는 숲속의 미녀중에서 오로라 공주의 기쁨을 나타내고자 추는 춤.



- 성 명 : 김 영 해
- 생년월일 : 1962. 8. 30
- 작 품 명 : 피치카토 폴카
- 작품시간 : 2 분

해설 : 꽃잎의 춤 짧은 테크닉과 갓 돌아난 꽃잎의 작은 움직임을 생각하며

부산시립무용단

한국무용

“허재비의 꿈”

안무: 최 은 희
(부산 시립 무용단 상임 안무자)

탈광대들의 생활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들의 풍자나 익살이면에 그 내면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. 즉 광대들의 고뇌와 추억과 꿈등 희노애락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굴레를 표현한 작품이다.

그 기법은 전통탈춤과 토속적인 리듬으로 주로 타악기를 사용했고 현대적인 감각으로, 3장으로 나누었다. 1 장을 숨겨진 내면의 깨어남과 소리, 2 장은 과거의 추억, 현재의 삶, 미래에 대한 꿈을 표현했고 3 장은 가슴속 밑에서 꿈틀거리는 흥풀이로 끝을 맺고 있다.

현 대 무 용

“학”

안무: 하 정 애

출연자: 김형희, 강신미, 김경순
김남미, 김미형, 김혜경
노현정, 이동숙, 이진희
이혜경, 황명숙, 최미애
한희자

내 용: 서양에는 새춤으로 백조의 춤이 있다. 한국에서의 새춤이라면 학춤이 있다. 이작품은 민속무인 동래학무를 소재로 현대무용적 기법에 의해 재 구성한 것이다.

부산여자대학

발 레

“토카타”

안무: 조 숙 자
(부산 산업 대학교 수)

출연: 양후령, 이은규, 이애란
박선옥, 윤보경, 김영해
정경희, 김희선, 윤혜경
김성희, 김옥련, 구미희
김경옥, 김광순

부산산업대학

제1 회

부산무용콩쿨

KBS 부산방송국



운영위원회

- 위 원 장 · KBS 부산방송국장
조 창 화
- 부위원장 · 부산시기획관리실장
박 성 달

위 원

- 무용협회부산지부고문
황 무 봉
- 무용협회부산지부장
배 혜 경
- 부 산 대 학 교 교 수
정 귀 인
- 동 아 대 학 교 교 수
김 해 례
- 부 산 여 자 대 학 교 수
강 이 문
- 부 산 산 업 대 학 교 수
조 숙 자

심 사 위 원

- 심사위원장 · 강 이 문 (무용 평론가)
(부산여대교수)

한국무용 전통

- 주심 · 김 진 홍 (무용가)
- 김 온 경 (부산여대 교수)
- 엄 옥 자 (부산대 사대 교수)

한국무용 창작

- 주심 · 황 무 봉 (무용협회 부산지부 고문)
- 이 윤 자 (부산대 예대 교수)
- 손 세 란 (무용가)

발 레

- 주심 · 조 숙 자 (부산산업대 교수)
- 황 창 호 (무용가)
- 이 광 순 (동아대 교수)

현 대 무 용

- 주심 · 남 정 호 (부산산업대 교수)
- 정 귀 인 (부산대 교수)

※ 대상심사 : 심사위원장 · 각부문주심